

#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지음

## 칭의에서 성화로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8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칭의에서 성화로

지 은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8. 12. 15.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

표지사진 | 안성식 [jetspeed@nate.com](mailto:jetspeed@nate.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장한디엔피

ISBN | 978-89-89741-94-7

정가 5,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

V. 로마서 5장 : 칭의의 결과 ..... 022

VI. 로마서 5장의 두 아담(5:12-21) .....	028
VII. 로마서 5~7장의 핵심 메시지 .....	031
VIII. 로마서 6장과 7장의 비교 .....	032
IX. 로마서 5~7장 : 성화의 삼중적 의미 .....	033
X. 로마서 6장 :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	041
XI. 로마서 7장 :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	058
XII. 로마서 8장 :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가? .....	069
XIII. 로마서 9장 : 선택받은 이스라엘 .....	091
XIV. 로마서 10장: 왜 이스라엘은 현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	091
XV.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미래 .....	092
XVI. 로마서 12장 :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	092
XVII. 로마서 13장 : 권력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	092
XVIII. 로마서 14장 : 실족하게 하지 말라 .....	093
XIX 로마서 15장 : 이방에 전파되는 복음 .....	093
XX 로마서 16장 : 안부와 경고 .....	093

# 서문

|||||||

이 책은 2015년 진리침례교회 여름수양회에서 로마서 5-8장을 중심으로 “성화”라는 주제로 4회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인 칭의, 거룩한 삶, 성화, 구별된 삶, 영을 좇아 사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걸려 넘어지며 갈등과 번민 가운데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부분(로마서 5-8장)일 것입니다

말씀을 잘分別하고 이해하며 소화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성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 4. 12.

저자 김영균

# 제1부 로마서의 핵심 공부

---

성경에서 가장 능통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만 고른다면 그것은 로마서라고 대부분이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것이 압축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칭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로써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셨으며 과거의 구원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도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 문제 해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구원 이후의 생활에 있습니다.

## I. 로마서 개요

### 1. 도입(1:1-17)

#### (1) 인사(1:1-7)

#### (2) 설명(1:8-17)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형식이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부는 인사말과 함께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제로 들어갑니다. 주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2. 죄(1:18-3:20) : 의가 필요함

- (1)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1:18-32)
- (2)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2:1-3:8)
- (3) 죄 아래에 있는 온 세상(3:3-20)

## 3. 구원(3:21-5:21) : 의가 전가됨

- (1) 칭의를 설명함(3:21-31)
- (2) 칭의를 표현함: 아브라함의 예(4:1-25)
- (3) 칭의를 체험함(5:1-21)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3번에 나와 있는 구원(3:21-5:21)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31절까지는 칭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전체는 칭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였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성화’입니다(롬6-8장).

## 4. 성화(6-8장) - 의가 분배됨

- (1)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위(6장):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 (2) 육신 안에 있는 새로운 문제(7장)
- (3) 성령 안에서 새로운 능력(8장)

죄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의가 필요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의’를 선물로 ‘전가’받는 것밖



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의가 전가되어야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성화란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칭의’라는 용어대신 ‘의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의화’, ‘성화’는 모두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화’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학 용어로 ‘칭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칭의’로 굳어졌습니다. 영어로 ‘-fication’이 ‘~이 되다’라는 뜻이므로 ‘의롭게 되다, 거룩하게 되다, 영광스럽게 되다’라는 의미를 살려 ‘될 화(化)’를 써서 ‘의화, 성화, 영화’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외우기도 이해하기도 좋을 텐데 왜 ‘칭의’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는 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뿐 아니라 속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워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가 분배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면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5. 주권(9-11장) : 의를 거부함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즉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9-11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으로는 절대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1) 이스라엘의 과거: 택하심(9장)

(2) 이스라엘의 현재: 거부(10장)

(3) 이스라엘의 미래: 구속(11장)

드디어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2000년의 연단 기간을 마치고 예수님을 받아 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속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신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 모든 이방 민족을 한 쪽으로 제쳐두고 그 중에서 가장 수가 적고 보잘 것 없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와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환난을 겪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11장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는 방침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과 후, 율법을 주시기 전과 후, 예수님의 초림 전과 후, 십자가 사건의 전과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펼쳐진 교회시대와 그 교회가 휴거된 이후의 환난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릴 천년왕국시대까지 각 시대마다 그분의 경륜 즉 경영 방침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알아야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끼워 맞추는 해악이 일어나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으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 돌이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예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성경

을 100번 정도 읽으셨는데, 그중에서도 30번 정도는 주석을 찾아가며 꼼꼼하게 공부하시며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읽지 못하는 바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시켰더니 전부 모순이 되어 혼란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분은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만이 진짜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겉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모순된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공부하면 쉽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깨닫는 자에게 성경은 명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명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화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세대주의를 바탕으로 쓴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너반 브라이언이라는 목사님이 일주일간 성경 강연회를 한 것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농사꾼이 딸이 보내준 그 책을 읽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로 인해 헛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헛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농사일이 한가한 겨울이 되어 다시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책을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0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의 구절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가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하며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읽지 못하면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헛갈려지며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끝까지

전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은 혼동을 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휴거된 후, 7년 대환난 시기에 지상에 남게 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절도 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아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종류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며 대상도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를 잘못 적용시키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나누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나오면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은 그 책을 읽고 나서 너무나 기뻐하며 이제는 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대상은 딱 세 가지 부류입니다. 유대인(이스라엘 민족)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우리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뿐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참고 혹은 교훈이 되는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10:32)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계십

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지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영어로 gentile인데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엔(UN; United Nations)으로, 260개의 국가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교도라는 이름이 붙는데, 이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반면 이방인들은 잘못된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종교적으로는 이교도, 민족적으로는 이방인, 인종적으로는 민족들로 칭해지고, 이 세 개는 다 하나의 그룹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다 같은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탑 사건 때 한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여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신7:7) 그리고 그 민족들 중 가장 수가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뽑아,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머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보여주기 위한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가 바로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과거의 나에게는만 적용될 뿐 지금의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역시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읽지 않아도 된다고 구약성경을 읽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보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야단치시고 싫어하시는 지, 어떤 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느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로마서에 세 장이나 할애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 6. 섬김(롬12:1~15:13) – 의를 실천함

앞의 2번에서 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의가 전가 된다고 했습니다. 4번에서는 의가 분배된다고 했고 5번에서는 이스라엘이 의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를 실천합니다.

- (1) 하나님께 헌신함(12장)
- (2) 권위에 순복함(13장): 시민으로서 국가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 (3) 약한 자들을 배려함(14:1~15:13):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 7. 결론(15:14-16:27)

- (1) 사역의 신실함(15:14-21)
- (2) 사역의 미래(15:22-33)
- (3) 사역의 친구들(16:1-23)
- (4) 송영(16:24-27)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부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조입니다. 대조는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도 다릅니다. 다른 것끼리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임에도 이 말이 유명한 명언인 의미를 새겨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것입니다. 개와 늑대는 다른 동물이지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과’라고 합니다. 고양이와 사자도 다른 동물이지만 비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할 때 항상 ‘~처럼’이나 ‘~같이’를 붙여 이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 다른 것끼리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에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확실하지 않아서 애매모호하게 섞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이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비교하며 대조하는 훈련을 통해 성경에 숙달될 수 있습니다.

## Ⅱ. 로마서의 중요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바로 로마서일 것입니다.

1. 로마서는 교리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칭의, 성화, 입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연합) 등). 로마서에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이며 중요한 교리들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하나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600여 페이지 정도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2. 로마서는 세대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9-11장).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제시됩니다.
3. 로마서는 실제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육신에 대해 승리하는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 Ⅲ. 성경에서 로마서의 위치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첫째 서신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의 신약성경의 서신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익합니다.

1. 교리: 로마서(위대한 교리서입니다.)
2. 책망: 고린도전 · 후서(이 두 책에서는 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3. 바로잡음: 갈라디아서(이 책에서는 거짓 교리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4. 의로 훈육함: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의 나머지 서신들이며 이 책들은 교리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서의 위치는 초석 중에서도 초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가 확고부동해야 그다음부터 나머지가 다 차곡차곡 세워져 갑니다.

### Ⅳ.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무려 40여 번에 걸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하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떠올립



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의 핵심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거저 제공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믿기만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대표이듯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계시되어 있나니”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믿음”을 하나 빼버립니다. 그리고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제대로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걸까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될 때도 믿음이며 그 다음도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머릿속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1). 1-3장은 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의가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

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 세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절대적으로 비타민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도, 당사자가 비타민을 먹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하며 비타민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비타민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알게 되면 먹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먹으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도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듣는 사람이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필요한지조차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를 자꾸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 (2)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제공하신다고 말합니다.
- (3) 9-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는지 말합니다.
- (4) 12-16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의를 실천하며 살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마지막 목적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디도서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살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 제2부 로마서 장 별 핵심 개요

.....

### I. 로마서 1장 : 죄의문제

이제부터 처음에 했던 것을 반복하며 조금씩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봅시다.

1. 인사(1-7절): 기록자와 수신자, 그리고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지 쓰는 형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누가 썼는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썼는지부터 밝힙니다.
2. 설명(8-17절): 무엇을 왜 쓰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정죄(18-32절):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무엇부터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의 인생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라며 긍정적인 것부터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한다면 듣고 있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먼저 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1)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18-20절)
- (2)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21-23절)
- (3)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습니다.(24-25절)
- (4)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했습니다.(26-32절)

이는 죄인들의 진행과정입니다.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Ⅱ. 로마서 2장 : 세 가지 심판의 원칙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 1.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것입니다.(2:1-5)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평균 이상을 살았다 해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며,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에 따라 형제를 미워하하는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 2. 심판은 개인의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6-10절)

집단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각자의 행한 대로 받습니다.

### 3. 심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13-29절)

## Ⅲ. 로마서 3장 :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 1. 나쁜 소식: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고 정죄되었습니다(3:1-20).

2. 좋은 소식: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3:21-31).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며, 영어로 gospel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good news,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맞는 뜻이지만 조금 피상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gospel’이라는 단어는 god(하나님)에 spelling(말씀하셨다)이라는 단어를 합쳐 만들어졌고,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1) 율법 밖에서입니다.(21절)

어차피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2)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22-26절)

(3)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27-31절)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 IV. 로마서 4장 : 칭의

1. 칭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1-8)

2. 칭의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집니다.(4:9-17)

3.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부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4:18-25)

그래서 4장은 아브라함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실례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4:18-25).

## V. 로마서 5장 : 칭의의 결과

1. 칭의의 복들(5:1-11)

(1) 화평(1절)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생각만 하면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 8:32) 그러므로 그분을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이제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회의주의자가 되어 자살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불편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계4:11)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한 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분을 피해 도망만 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공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담대하게 나아오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셨을까

요? 감히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을 누린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분은 복음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아들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인데…….’ 싶지만 그분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 (2) 다가감(2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현대 용어에서는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만 뛰어나도 집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십니다. 아들의 피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오면 공활을 베풀고, 때마다 도움을 주고,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뜰과 성소가 있는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그 덕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도대체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기도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들어가십니까?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돕는 은혜, 공활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고민하고 죄를 지으며

힘들게 살며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한심스럽고 답답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3) 소망(26절)

이 세상에서 인생이 행복하게 끝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 받은 이들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끝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중간에 그들이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보적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일 것임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기뻐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소망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쁜 나날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로마서 5-7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 금방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느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즉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평안을 네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화평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누



리고 향유할 수 있는 화평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화평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 (4) 확신(3-4절)

여기서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신앙 여정이 시작됩니다. 위의 1번과 2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환난이 닥칠까요? 이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행14:22)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반드시’에 주목하듯,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에서도 역시 ‘반드시’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환난을 거쳐야만 과거 우리의 육신적인 어그러진 모습과 비뚤어진 모습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어떻게 어울려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환난 자체는 기뻐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환난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이 나에게 가져다줄 유익을 생각하면 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환난뿐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인내를 하다 보면 나에게 체험이 되어 웬만한 고통이 와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소망을 가져다줍니다. 순서를 보면, 환난-인내-체험-소망 순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내는 여러 번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 (5) 하나님의 사랑(5-11절)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그랬으면 좋겠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반드시 100%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이 소망의 확증은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 2. 칭의의 기초(12-21절)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곳이 바로 로마서 5장 12-21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한참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셨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통해 알기 쉽도록 도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 (아담 vs 그리스도 대조)

아담	범죄(15-16절)	그리스도	값없이 받은 선물(15-16절)
	사망(17절)		생명(17절)
	정죄(18절)		칭의(18절)
	불순종(19절)		순종(18절)
	율법(20절)		은혜(20절)

여러분은 어떤 쪽의 줄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줄이 있는데 한 쪽의 대표는 아담이고 다른 한 쪽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아담 쪽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쪽의 줄에 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방법은 “믿음을 통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

담 쪽 줄에는 나쁜 것으로 가득하나, 예수 그리스도 쪽 줄에는 좋은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재빠른 짐승이라도 고속도로 위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야생동물들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태통로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셈입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아담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한 길을 걷지 않고 위험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 Ⅵ. 로마서 5장의 두 아담(5:12-21)

- 첫째 사람은 이름이 첫째 아담입니다.
- 둘째 사람은 이름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다 합친 마지막 아담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인류인 아담 말고, 새로운 창조물이자 두 번째 죄 없는 인류인 둘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게 되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고전15:47)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창1:26-27)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창조의 왕과 제사장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아담은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받았을 때 실패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순종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로 굴복 시키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정죄 사망이 첫 번째 사람인 온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의와 구원, 생명을 두 번째 인류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죄가 다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롬5:14)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가 다스립니다(롬5:21).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롬5:17)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5:21)

앞에서 말한 복잡한 내용들을 이 두 아담의 비교를 통해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구약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으로 시작해서 ‘저주’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창5:1-2)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with a curse)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말4:6)

2.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으로 시작하고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계22:3).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마1:1) 구약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의 책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고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세대가 하나인 것입니다. 3. 창세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실낙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실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대서사시를 써서 영문학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으나 비 성경적인 교리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하늘은 3층천, 즉 세 개로 되어 있는데 7층천이라고 하여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했습니다.)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아담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나는 정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가 다스리며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죄가 다시 나를 종으로 부리지 못합니다.(6장의 주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

도께로 옮겨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나는 죄인이며 나의 죄값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줄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 VIII. 로마서 5~7장의 핵심 메시지

이제 5장과 6, 7장의 차이와 6장과 7장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로마서 6장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보통 5장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에게는 이보다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계속 죄를 짓고 극복하는가 싶더니 또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성도들을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를 알면 영적으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너무 강조하며 이 사실 한 가지만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

시는 것은 바로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도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좇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구속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 VIII. 로마서 6장과 7장의 비교

첫째 아담은(첫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은(둘째 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졌음(고전15:47)	하늘로부터 왔음
옛 창조의 왕이었음(창1:26-27)	새 창조의 왕과 제사장이심(고후5:17)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 받았을 때 불순종함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시고 겐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음
불순종으로 죄, 정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함	순종으로 의, 구원,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임함
죄가 다스림(14, 17, 21절)	은혜가 다스림(21절)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다스림(17절)

## IX. 로마서 5~7장 : 믿는 자의 삶에서의 실천적 거룩함 - 성화의 삼중적 의미

-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성해야 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실은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 위치적: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 이다”(요17:16)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전6:11)

-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 2)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 3) 의롭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고 이후로 날마다 거룩해지다가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고 끝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따로 떼어 두셨습니다.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는 실천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또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는 실천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실천적: 죄에 대해 날마다 승리하며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살전4:3).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벧



전1:15)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천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성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그 핵심이 바로 로마서 6,7,8장입니다.

3. 완전함: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요일3:12)

성화는 과거이며, 완전함은 미래이며, 매일매일 실천하는 실천적 성화가 바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신분이 바뀌었고, 둘째, 우리의 마음자세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읽으며, 교회에 가서 찬송도 부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생활이 어떤 이는 1년 정도 가고, 또 어떤 이는 몇 개월밖에 지속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마음에 와닿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느끼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못마땅한 것이 많아지는 때가 옵니다.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몇 개월간은 계속해서 그를 지지해주는데 이는 그에게 마음껏 지도력을 발휘해보라는 일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는 듯합니다.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된 상태로 이것저것 일을 하지만 평생 그 상태로 살기는 힘듭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널 때 소고치고 북 치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마실 물이 없으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구원을 받은 후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는지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에게도 광야가 나타난 셈입니다. 무엇을 해보아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극복해보고자 애를 씁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실패의 양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성화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번 속죄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막 살아도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을 보면 결코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형태는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봉사, 헌금 등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한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을 제대로 못할 뿐입니다. 또, 실천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죄의 몸으로 죄에 익숙해져 있기에 계속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 로마서 6장: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바울도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보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히12:4)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죄 문제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보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몸이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좇아 살면 죄는 자동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의 몸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자동으로 짓습니다. 죄의 몸(옛사람)과 사망의 몸(옛사람)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다시 말하면 율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롬8:4) 육신을 따라 걸으면 죄의 몸이 활동하여 죄를 짓고, 사망의 몸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걷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몸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을 무척 좋아하여 에베레스트산에 오르는 것이 꿈인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유명한 등산가의 배낭에 올라타서 가는 것입니다.

항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용하려 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롬6:10).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나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의 주님이 아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원점으로 모두 돌아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거듭된 실패의 원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에 가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역시 금세 배울 수 있는 것을 20년째, 30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에서 미국식으로 살다가도, 급하면 한국식 행동이 나와 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패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나란히 멍에를 메고 가게 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의탁하여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5-8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의 연속입니다. 나중에는 계속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7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대체(substitution)	일치(identification)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심
죄의 형벌을 받으심	죄의 권능을 부수심
칭의(justification)	성화(sanctification)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imputed)	의가 우리에게 분배됨(imparted)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6-7장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입니다. 나를 대신하시기 때문에 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므로 일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공동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지폐를 성경 신·구약 사이에 넣어두면 이 지폐는 항상 성경과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져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나의 장사 지냄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

의 부활이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일치, 혹은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나에게 이해가 되어야 하고,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쓰인 전치사 for는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의에 대해서는 삽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삽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나 대신 겪으셨습니다. 6장과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들로 인해 죽는 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들은 열매이며, 죄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죄들의 문제를 다루고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죄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가 해결하지만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죄의 공장을 완전히 폐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바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죄라는 인격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끝이 났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단단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내 삶에서 생명으로 점점 스며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의 전가됨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라고 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대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분께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형성되어 분배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여 어린 생명체가 배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10개월이면 그 생명이 완성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분배되고 성화되는 중입니다.

6장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했으면 이제부터는 바로 8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분명히 7장이라고 하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장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7장에서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율법, 즉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언어로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배울 때 문법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서 말하고 듣다 보면 금방 실력이 늘 수 있지만 문법을 배우고 나서 말하기, 듣기를 하려니 머릿속에서 ‘법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에 쉬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마치 이 영어의 문법처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문제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7장은 나중에 비교를 통해 자세히 보기로 하고, 지금은 로마서 6장 본문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동사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 X. 제 6장 :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로 인한 딜레마를 많이 겪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음에도 왜 나는 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 명백히 죄를 지어 놓고도 그것은 나약함 때문이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인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못 적용하여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육신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 1. 알라.(롬6:1-10)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호 4:6) 성경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2. 여기라.(11절)

## 3. 넘겨 드리라.(12-23절)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 문제의 해결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또, /; 다시 우리를 속박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에 대한 답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 보고자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면 걸 보기에는 그럴 썩 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시도를 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나는 율법의 속박 아래에 놓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20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이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이를 놓치고 정말 제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해 보겠다는 것은 가인의 헌물이 되는 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인이 가져온 농산물은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로마서 5장까지는, 드디어 우리가 칭의를 얻고 이제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짓겠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그 많은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명백히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빚을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와 500데나리온을 탕감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며,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따져보면 역시 후자 쪽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나도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쓰인 ‘God forbid’를 봅시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고도 합니다. “그런 짓을 금하시느니라.”라고 말입니

다. ‘forbid’란 문자를 그대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직역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 또한 내가 심판받은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과 나는 온전하게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침례는 성령 침례인데 사람들은 흔히 물 침례로 알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아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아담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께서 넣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고전12:13). 그리고 침례의 내용은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로, 이 한 몸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이 교회가 되는 유기체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 사람, New man입니다. Old man인 아담이 아닙니다. 이 뉴 맨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던 강도부터 시작해서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첫 번째 요소는 죽음이고, 두 번째 요소는 장사지냄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이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게 자꾸 속는 것입니다. 침례의 세 번째 요소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죽고, 묻혔다가, 부활하여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한 예수님처럼 물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새사람입니다. 침례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서 죽고, 전통에 대해서 죽고, 옛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고, 묻히며,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침례로써 ‘선한 양심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목적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시면 나도 죽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면 나 역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3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알거니와”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을 멸하였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갇아야 할 빛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만나서 식사 한 번 해보지 않았고,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알다’의 의미는 후자입니다. 교제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이브를 알게 되자 자식이 생겼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처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자 자식이라는 열매가 생겼듯이,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켜 이제는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새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파리를 틀고 앉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튀어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성령을 좇아

(after spirit) 항상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워낙 육신적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육신을 좇아 살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성령을 좇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여기서 또 “알거니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선이란,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을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습이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적인 성품을 말씀합니다. 미래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똑같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성령의 열매만 맺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인간이 이런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아주 무모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결심

한다면, 쇠덩어리가 물에서 뜨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바라는 일입니다. 고양이가 강아지의 소리를 내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목표를 세우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분께서 왕좌에 앉아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 노릇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었습니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으켜졌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과 과부도 일으켜졌으나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일으켜지고 다시 죽지 않은 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10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

장에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번에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33년 반 동안 죽어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정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말씀대로 나도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11절부터는 로마서 6:1-10절까지의 내용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명을 들어서 알았다면 이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알라"고 하였고, 둘째로는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느낌이, 기분이 아닌 것 같고 의심이 들지언정, 기분이나 느낌을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이다.**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면 됩니다.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해서 5만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회계장부 대변에 5만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밥을 사 먹고 차변에 마이너스 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총 43,000원이 남습니다. 그대로 이를 기입하는 것을 두고



reckon이라는 회계용어를 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분야 중에 하나가 회계와 수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데 억지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를 보니 43,000 원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죄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자답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날마다 체험하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죄가 나를 이용해서 지지르는 모든 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몸의 정욕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반응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린다(yield)”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항복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알다, 믿다, 내어드리다” 이 순서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에 쓰여있는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하며 이를 약점으로 잡아 지배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7장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전15:55). 이 세상에서 가장 최후의 원수, 가장 강력한 자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 이 사망을 가리켜 그와의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면제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능을 가진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울은 감히 그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율법이라는 힘으로 죄가 나에게 화살을 쏘지만 우리는 율법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해당 법이 없기 때문에 죄는 나를 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한속도라는 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몇 km/h 이상의 속력으로는 달릴 수 없게 합니다. 이 기준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누구도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완전한 자유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그러나 문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너무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1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육신을 위해 자유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갈5:13-14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의 남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산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죄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였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리의 틀은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의 교리의 틀을 믿으므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육신이 나약한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빌려 다시 한 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손과 발, 눈, 코, 입을 모두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더러운 일을 했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고 오직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

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인지요. 그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들 안에서 우리는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일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사망의 몸이었습니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영존하는 생명은 우리가 나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시간적 의미의 뜻이 강하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롬6:4)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의 ‘칭의’는 단순한 칭의가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주는 칭의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고결하고 고귀한 인간의 삶을 살아 내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얻던 자가,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기쁨을 누리며 그 생명의 속성이 우리 삶을 통해 발휘가 되고 표현이 되어 나타납니다.

23절 죄의 삶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생명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점점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분이 기독교의 창시자이고, 유대인이시고,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라는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음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됩니다. 드디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

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갑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그 친구를 사귀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친구에 대해 알아가듯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즉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로마서 6-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더 성장해 가는 기점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후3:18)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마음을 뺏겨, 그것들을 주시는 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축복과 선물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것들을 주시는 분에게는 감사치도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표가 바로 고린도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자동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점점 간절해집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도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구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나면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2).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6장과 7장을 비교해서 말씀한 것처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이고 그 문제가 6장에서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섬기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해결해야만 승리의 장인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6장을 해결한 그리스도인들은 더러 있으나 7장을 넘어가지 못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명의 몸이며 죄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의 도표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6장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너무 기뻐했는데 7장에서 율법이 대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버립니다. 이곳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p>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p>	<p>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처럼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p>
<p>아닙니다.</p>	<p>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p>
<p>죄의 몸에 속박 당함</p>	<p>율법에 속박 당함</p>
<p>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p>	<p>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율법이 다시 나를 속박합니다.</p>
<p>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음</p>	<p>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음</p>
<p>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p>	<p>율법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음에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p>
<p>종과 주인</p>	<p>아내와 남편</p>
<p>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8:32-35). 자유란 해방을 뜻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죄를 지으라 하면 그 말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 좋은 주인이십니다.</p>	<p>이 남편은 아주 나빠서, 아비가일과 나발의 관계처럼 아내를 부려 먹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남편인 나발이 죽은 후 좋은 남편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좋은 신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p>
<p>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악을 피할 것인가의 문제</p>	<p>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선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p>
<p>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께서 내어드리면 문제가 해결됨</p>	<p>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알고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어드림으로 문제가 해결됨</p>

## XI. 로마서 7장 :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법을 아는 자들에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구약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말씀의 대상인 것입니다. 법이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죽은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녀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갈라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姦婦)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이를 두고 ‘간부’라고 칭합니다.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많은 혼란과 논란이 생깁니다. 도대체 남편이 누구냐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남편을 율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숭사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남편은 누구일까요? 그가 나입니까? 여기서부터 성경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됩니다. 이를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살아 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영이라는 속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혼이라는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내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와 동시에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은 육체에 들러붙어 육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자아)를 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죄가 내 육체를 틈타 죄를 짓게 할 때에 내가 순종함으로 영에 따르지 않고, 겉사람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나는 육체와 하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혼과 육체의 결혼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옛 남편이며 나에게 나쁜 남편은 바로 죄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머물게 되는 육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서는 몸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어 버렸고 몸은 타락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타락한 몸을 더럽게 여겨 시체를 만지면 그 손이 더러워지므로 씻어야 하는데, 혼과 육체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속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서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옛 사람은 내 남편으로서의 나입니다. 나는 남편인 동시에 아내인 셈입니다. 내 안의 혼은 아내이고, 바깥에 있는 몸은 남편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 결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붙어있던 혼과 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이로써 나는 옛 남편과 결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옛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가 죽어야만 내가 예수님과 결혼을 해도 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혼과 영과 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7장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며 거룩합니다. 그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으로는 남편이며, 새사람으로서는 아내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골2:11-12).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축약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죄들에 속한 몸”, 즉 그냥 몸이 아니라 이미 육신의 죄들로 가득 차 있는 타락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할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골2:13).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통해, 로마서 7장의 옛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있지 않아도 되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자녀가 열매로 나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했으니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두 남편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글자의 낡은 것은 율법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편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자체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지킬 수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율법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보고 지켜야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바로 그 거룩한 법을 보고 내가 절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십계명 중에 9가지를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법 앞에서 꼼짝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분명 탐심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8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을 보면 죄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나 율법이 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났던서부터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

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즉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성품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죄의 열매가 나옵니다. 죄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내 안에 있는 한 언젠가는 그 제품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제품이 나오는 순간, 즉 행동으로 죄를 행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한 순간에 죄를 행함으로 영적으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모두 어떻게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보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 10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나는 육신적이므로 도저히 이 생명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율법이 나에게는 저주가 되고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11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야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양심에 따라 몇 번 짚은 진실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거짓말

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부터는 상황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 중 하나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씹어가는 나병(癩病)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 12절 그런즉 율법도 기록하고 명령도 기록하며 의롭고 선하다.

모두 다 훌륭한 것이지만, 내가 육신적이므로 도저히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서는 사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만 본래 목적 자체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죄임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 율법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나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했으며, 살인도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를 보면 내 안에 죄가 넘쳐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보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관의 어두움 가운데 환한 빛이 비추어지면 엄청난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마음에 기록된 율법, 즉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양심에 어긋난 행동들을 했는지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노예가 팔리듯이 우리는 마귀에게 팔렸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노예의 값으로 자신의 고귀한 피를 지불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은 영적이지만 우리는 육신적이므로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슬프게 하고 실망만 안겨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속은 것은 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끌려간 것이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법을 보아

도 자발적으로 살인한 것과 누군가의 사주나 위협을 받아 살인한 것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이 하라는 것을 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므로 나도 선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함이 역으로 율법이 선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죄가 나를 속였고, 그 결과 나는 팔렸습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속였고, 그 결과 나는 팔렸습니다.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원하는 바는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처럼 내 안에 죄라는 인격체가 언제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때 쓰이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 사과는 나무에 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가 갑자기 공중으로 솟구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분명 나의 마음으로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을 넘어갔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악한 법이 있습니다.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육체의 손, 발 등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members, 즉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죄의 다시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결국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수없이 반복하지도 못하고 몇 번 해보다가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7장에서 올라미에 씌워 꼼짝도 못하고, 마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뱅글뱅글 제자리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기다리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위치만 니가 설교에서 썼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교팀을 꾸려 지방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바닷가에서 쉬던 중에 한 형제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깊은 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형제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훌륭한 인명구조 실력을 가진 형제가 옆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들은 척 만 척하며 물에 빠진 형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지만 그 형제는 계속 물에 빠진 형제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형제가 힘이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 즉시로 바다에 들어가 물에 빠진 형제를 건져 내어 살렸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원칙상, 물에 빠진 이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 내야 구조를 받는 사람이나 구조를 하는 사람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남아서 필사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릴 때에는 죄에게 더욱더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구해주지 않으시고 지켜만 보십니다. 그가 가진 힘을 다 소진하고 축 늘어져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십니다. 욕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까를 고민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롬7:24).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누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예화에 등장했던 인명 구조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누가 나를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혹은 '어떤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즉시로 주님께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므로 저를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상당 수의 형제 자매님들은 이 비결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길을 가셔야만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몸"이었고,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위치만 나는 여기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했을까요.

1. 두 남편(롬7:1-6): 육신 vs 그리스도
2. 두 발견(7-14절):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입니다.
3. 두 원칙(15-25절): 죄와 사망의 법 vs 생명의 성령의 법

23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도 일반 형법과 민법들 위에 헌법이라는 상위의 법이 있어서, 이 법에 위배되면 어떤 법률이든 그 즉시로 효력을 잃고 폐기됩니다. 그 상위의 법 역할을 하는 법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에 나와 있습니다.

## XII. 제 8장 :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가?

로마서 5~8장은 ‘성화’라는 큰 주제에서 절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탁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에 마냥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벗어버리지 못한 육신이 있고, 이 육신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운데서 잘 성숙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신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임을 믿고 두려움 없이 안전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 잘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서의 총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 7-8장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전율케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정죄

입니다. 소위 말해 지옥 또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정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도 정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예수님처럼 완성된 형태로 보시기 때문에 정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죄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거나 징계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조금 다른데 damnation과 condemnation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영적으로 형편없는 자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망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너희가 죄로 인해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지 않고 육신을 좇아 살 때 받는 징계 같은 것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정죄는 문맥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정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맥에서의 정죄는 7장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condemnation을 영원한 정죄라고 단정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령을 따라 걷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방황하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정죄함이 있는 것처럼 해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리적 혼란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그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술문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위협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개역성경은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삭제시키면 안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필사자의 실수로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상력이 참으로 풍부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성취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일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육신의 모습들이 열거될 것입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며, 율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며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할 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8장 1절은 킹제임스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절반이 날아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배우는 것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삭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만 적용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해당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내게는 미국 법이 적용되지,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잊어버리고 다시 육신을 따라 살면 옛 법이 적용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은 나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분이심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약하여 그 율법의 의를 도저히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자꾸 법을 어깁니다. 결국 율법은 내 육신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를 죽이는 것뿐입니다.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문제의 근원이 제거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르려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인간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다면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육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배 속에서 죄가 없는 몸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몸으로,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은 타락한 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죄가 거하는 육신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the holy thing(거룩한 것)’이라고 하여 하나의 물건처럼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뱀이 아닌 뱀이었었습니다. 뱀은 마귀이므로 그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모양만 뱀일 뿐 그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모양은 아담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담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게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벤전2:24),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9)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온 우주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 위에 다 올려놓고 그분을 심판하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 ‘제거’라는 단어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가져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져가셔서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죄는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죄 없이 오십니다. 이 혜택을 누리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히9:28).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에서 “와 상관” 부분은 이탤릭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필요 없는 말인데 번역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죄 없이’에 보완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간혹 영어로 말이 되지 않아 본래 주어진 구절에 덧붙이는 단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원문 외에 추가되는 단어를 이탤릭체로 써서 어느 부분이 추가된 것인지 명백하게 밝힙니다. 다른 성서들에는 그런 장치가 없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지고 지옥에 가서 모두 내려놓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라고 원문 그대로 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맥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라고 번역한 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글자 그대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죄는 정죄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 안에서도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만 하면 24시간 내내 죄를 하 나도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00% 형성되어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40% 정도 형성되어 있으면 야곱처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파라오가 보기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이런 권위도 없으면서 어떤 힘으로 누르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억지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고 군림해서도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 영적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곳에 눈을

둘러 육신의 손을 잡으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과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5:19-2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입니다. 구원과 관련 없습니다. 상속 유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이를 두고 진정한 인생역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1절의 방식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므로 나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빌2:12).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한 가지 열매인데 아홉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과 기쁨은 있는데 왜 절제는 안 될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제가 없다면 사랑과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해야지 열매 중에서 어떤 특성은 있고 어떤 특성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9가지 특성을 가진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 1. 정죄함이 없음: 성령과 율법(롬8:1-4)

## 2. 의무감이 없음: 성령과 육신(5-17절)

올법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가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육신 중에서 항상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나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손을 잡으면 스스로 율법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귀족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집에는 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가정부가 있었는데 귀족은 그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아내라는 신분에 맞게 대우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이 자신을 계속해서 가정부라고 생각하며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던 대로 의무감으로 주인을 대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나를 아내로 삼아주었으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 사랑과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내적 동기가 다릅니다. 복음도 전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며 섬기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별주실까 두려워하며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즐겁게 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좇아 자유롭게 사느냐? 아니면 율법에 얽매어 사느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해야만 해.’라고 한다면 율법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 (1) 우리를 확신시켜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육신에게는 더 이상 빛진 것이 없습니다. 빛은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채권자이나. 다 탕감해주셨습니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외에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헛되고 헛된 일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성령님을 좇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 것임에도, 그리스도의 십판석에서 왕관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2)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다 성령님께서 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주인, 이런 신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한 일까지도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한 마음만으로도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보상까지 해 주신다니 너무나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3) 매일 우리의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견디고 계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주님을 배반하고 옛 주인을 찾아가 죄를 짓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서는 신음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3. 분리함이 없음: 성령과 고난(18-39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8장까지입니다.

세 가지 신음소리와 성령님의 도우심

- (1) 죄의 형벌로부터
- (2) 죄의 권능으로부터
- (3) 죄의 임재로부터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육신 안에 있던 우리를 성령 안으로 옮기신 분이 있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영적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여름에 얼음을 만들기 위해 그릇에 물을 담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어 그릇과 얼음을 분리시키려 할 때, 얼음이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릇과 얼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혼과 몸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버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그릇을 살짝 얹어



놓으면 그릇과 얼음이 순식간에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었지만 얼음은 여전히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음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할례를 통해 내 혼이 얼음처럼 그릇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혼과 몸이 붙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문맥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 안에 놓여 있지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 의지로 명령을 좇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와 결혼하려고 하시는데 옛 남편인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간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으므로 합법적인 혼인이 가능합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있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화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롬12:1) 만약에 11절이 없다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타락한 육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서 10절에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라고 하셨는데, 그 죽은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12장 1절에서 living sacrifice, 산 희생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을 드리게 되면 산 희생물이 아닌 죽은 희생물을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몸을 성령께서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산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앞에서 육신의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의 열매들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영에 의해 인도받는다를 것을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상하고 신비로운 체험이 없으면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으나 분명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옆에 더 맛있는 것이 있을 것 같

아 가던 무리에서 이탈하여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던 때, 믿지 않던 때에 우리를 지배했던 영입니다.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양자라는 단어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양자 삼는다는 말은 영어로 ‘adoption’입니다. 흔히 입양이라고 하죠. 우리는 입양이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의 입양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출생과 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출생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출생은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생명의 탄생으로 출생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세자 책봉을 하여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그 세자 책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입양입니다. 태어난 아들에게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적 행위입니다. 내가 입양이 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상속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나에게 인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친자와 양자가 상속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되면 양자가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자는 자

연 발생적으로 낳게 되었으나 양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자녀가 되었으므로 법적 권리를 더 강하게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출생과 입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죄를 지어 하나님을 슬프게 해 드렸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든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출생으로서나 입양으로서의 상속자로 다 보장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이라고 하니 고생하고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사는 사람만 영광을 받고,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과 다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 다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흠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욥 5:6-7)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형태로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의 고통은 혼자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통 뒤에 영광이 있

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지만 예수님 없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더 크고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드디어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영광은 엄청나게 무겁고, 고난은 무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볍습니다. 일례로 바울이 당한 고통을 고린도후서 4장으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가볍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뻔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은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후11:22-28)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헌신되어 있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바울은 항상 만족하며 기쁘게 살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보면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민과 고통이 늘 함께 했으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는 말씀처럼 살 수 있었던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며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렸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고, 덕분에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이내 물에 빠졌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초월적으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장하면 다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어 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에 따르

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데리러 오시는 휴거 때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오시는 예수님이 만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오염된 모든 자연 만물이 저주에서 풀려 다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해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죄의 법에 의해 자연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온 우주가 죄의 법에 묶여서 신음합니다. 사막화 현상, 각종 오염, 온난화 현상 등 온 우주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 것이지 자연이 자진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의 저주가 동시에 다 풀릴 것이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의 소망이 됩니다.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처럼 오염된 지구가 아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처음 그 모습 그대로의 지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세 가지 신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한 인간의 신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육체로 인해 신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세계의 신음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음입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인 몸의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과 우리의 나약한 모습과 우리의 어린 모습을 성령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신음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성장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 번에 걸쳐 권면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을 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야 갓난아기부터 점점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이 든 자가 되는 7단계에 걸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로는 이를 더 빠르게 지나서 20살이 되면 성인입니다. 육체는 삼시 세끼를 잘 먹어서 때에 맞게 잘 성장했는데, 영적으로

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양식은 먹지 않습니까? 입에서는 달게 먹었지만 소화를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하지 못해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딜레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를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중 적절하지 못한 내용은 성령님께서 차단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모두 걸러내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간구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고치고 버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을 말씀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필요한 것이 없이 넉넉하다는 것을 깨닫고 간구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무엇을 해



달라고 간구하면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참 잘 됩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성숙이 되면 응답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조용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만 부르신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입으로 고백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자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사주의를 비롯해 기복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결국에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그 말씀은 만사형통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입니다.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쓰임 받도록, 불행이든 괴로움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을 배정하십니다. 이 모든 어

려움들이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선을 이룹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정과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을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지를 예정하시지 않았습니까.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럴 만한 상태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깥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완전한 의로 변한 모습으로 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순간에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과거에 의롭게 되었고, 현재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미래에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건전한 교회의 90%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면 시간의 개념이 그분과 다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웠고, 점점 의롭게 살아가며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고 점점 영광스럽게 되어 갑니다. 내 쪽에서부터 목표를 만들어 진행하는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중간에 보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구절이 한 두 구절이 아닙니다. 31절-39절까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30절에서 영광스럽게 끝이 났는데 왜 이를 기록하셨을까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는 데에 18절에 현시대의 고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음, 고난, 고통, 마귀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보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39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 세상이 대적합니다.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고소합니다. 마귀는 욥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고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대제사장께서는 은혜의 왕좌에서 항상 우리에게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담대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들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겪고 있던 고통들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겪었던 고통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서는 35절에 나오는 환난, 핍박, 곤경, 기근, 별거벗음, 위험, 칼을 모두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니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더 이상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와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 번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자주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실천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5-8장까지를 통해 성화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 XIII. 로마서 9장 : 선택받은 이스라엘

### 1.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을 설명함(1-13절)

(1) 택하심의 복들(1-5절)

(2) 택하심의 기초(6-13절)

### 2.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을 옹호함(14-33절)

(1) 하나님이 불의하신가?(14-18절)

(2) 왜 하나님은 잘못을 찾으시는가?(19-29절)

(3) 이방인에 대해 뭐라 말하겠는가?(30-33절)

## XIV. 로마서 10장 : 왜 이스라엘은 현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1. 이스라엘이 거부당한 이유(1-13절):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얻고자 함
2. 거부당함에 대한 치유책(14-17절)
  - (1) 사자를 보내심
  - (2) 말씀을 선포함
  - (3) 말씀을 들음
  - (4) 말씀을 믿음
  - (5) 그리스도를 부름
  - (6) 구원을 받음
3. 거부당함의 결과(18-21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심

## XV.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미래

1. 개인적 증거(1절): 디모데전서 1:16, 고린도전서 15:8
2. 역사적 증거(2-10절): 이사야서 1:9, 29:10
3. 세대적 증거(11-24절)
4. 성경적 증거(25-36절): 예레미야서 31:32-34

## XVI. 로마서 12장 :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1. 제단 위에 놓인 희생물(1-2절)
2. 몸의 지체(3-8절)
3. 가족의 지체(9-13절)
4. 전투에서의 군사(14-21절)

## **XVII. 로마서 13장 : 권력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1. 진노로 인하여(1-4절)
2. 양심으로 인하여(5-7절)
3. 사랑으로 인하여(8-10절)
4. 구원자로 인하여(11-14절)

## **XVIII. 로마서 14장 : 실족하게 하지 말라**

1. 나는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는가?(1-5절)
2. 나는 이 일을 주님께 행하고 있는가?(6-9절)
3.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일인가(10-12절)?
4.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은가?(13-21절)
5. 나는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22-23절)
6.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15-17절)

## **XIX 로마서 15장 : 이방에 전파되는 복음**

1.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8-13절)
2.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역(14-22절)
3. 이방인 교회들의 유대인 사역(23-33절)

## **XX 로마서 16장 : 안부와 경고**

1. 인사해야 할 사람들(1-16절)
2. 피해야 할 죄인들(17-20절)

### 3. 존경해야 할 종들(21-24절)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소화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자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구간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0년, 20년의 세월을 갈등과 번민 가운데 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머리로만 다 이해를 했어도 순종함을 통해 실천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되돌아가버립니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32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40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침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8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32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4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2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아훼'와 '야호'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Highest) 수준의 생활(生活)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 종 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가량 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롬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군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군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 김영균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 역 서

- 책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 도서출판 킹제임스

- 엠.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사무엘. 킵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키스 파이프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D. L. 무디 〈심음과 거둬의 법칙〉 / 라온누리